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7.19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8	0.3	2.4	6.0	12.1	12.1	1.3	1.3	1.6	1.6	
통신업종	1.0	-1.0	9.9	31.8	10.6	10.6	0.8	0.8	3.5	3.5	
SK텔레콤	0.0	-1.4	6.6	32.0	11.1	8.7	0.9	0.9	3.2	3.3	
KT	2.8	1.1	16.2	40.0	10.2	9.2	0.6	0.6	4.5	4.8	
LG유플러스	1.0	-3.9	12.2	23.4	9.4	8.3	0.8	0.8	3.5	3.7	
AT&T	-0.4	-1.4	-5.4	-2.8	8.9	9.1	1.1	0.0	7.4	7.0	
Verizon	0.7	-0.1	-3.1	-1.6	11.0	10.8	3.0	2.6	4.5	4.6	
T-Mobile	2.3	2.0	12.3	17.4	64.2	43.0	2.7	2.6	0.0	0.0	
NTT	0.9	0.8	0.3	5.0	11.5	9.5	1.3	1.2	3.6	3.8	
KDDI	0.9	0.0	1.0	7.7	12.2	11.9	1.7	1.6	3.5	3.6	
Softbank	2.1	-4.5	-25.8	-12.0	3.3	9.6	1.7	1.1	0.6	0.6	
China Mobile	2.9	1.5	-6.2	-2.3	7.3	7.1	0.7	0.7	7.2	7.6	
China Unicom	0.0	0.0	-7.4	-19.3	7.5	6.7	0.3	0.3	5.6	6.4	
China Telecom	6.0	27.9	12.0	23.1	9.0	8.6	0.5	0.5	6.1	6.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7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8%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2Q21 실적 기대감에 통신 3사 주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외국인 순매수는 지속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신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 서비스 론칭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텔레콤, LGU+ 순매도. 외국인은 통신3사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Verizon, AT&T가 각각 21일과 22일(한국 시간) 2Q21 실적 발표 예정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신규 서비스 초기 성과에 따라 통신 3사간 수급 변화 예상
5G 통신장비 섹터는 하반기 투자 확대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 중심으로 실적 개선 전망
글로벌 광섬유/광케이블 업황 턴어라운드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대한광통신 Top Pick으로 제시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	12	13	14	15	16 Ericsson 2Q21 실적발표	17
18	19	20	21 Verizon 2Q21 실적발표	22 AT&T 2Q21 실적발표	23	24

3 주간 뉴스

▶ 네이버 제페토에 도전장...SKT, 새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공개

(아시아경제)

- SK텔레콤, 글로벌 이용자 2억명을 웃도는 제페토에 맞서,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공개
- 이프랜드는 메타버스의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메타버스 브랜드
- 기존 가상현실(VR) 서비스인 '소셜VR', '버추얼미팅'보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MZ세대 니즈를 겨냥
- ⇒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결정되면서 SK텔레콤은 분할 전까지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할 전망
- ⇒ 이번 신규 서비스의 초기 성과가 향후 존속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정당화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

▶ LG유플러스, 日 KDDI와 5G·6G 협력 강화

(전자신문)

- LG유플러스, 일본 KDDI와 5G 이동통신 신사업 발굴과 6G 이동통신 공동 대응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 양사는 협약을 계기로 네트워크 기술 및 솔루션은 물론, 유무선 사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 이동통신 신사업 사업화와 향후 6G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 제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
- ⇒ LG유플러스는 KDDI와 다른 국가 통신사업자와 협연 관계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방침
- ⇒ 이번 MOU 체결로 Pure telco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통신 부문 실적 매력력이 더욱 부각될 전망

▶ KT, LTE 연결 없는 5G 단독모드 상용화

(ZD Net Korea)

- KT, 갤럭시S20, S20+, S20 Ultra 등 3종의 5G 스마트폰에서 5G SA모드 상용 서비스 시작
- SA 모드는 NSA 모드 대비 지연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배터리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효과 기대
- KT는 2019년 NSA 방식을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A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
- ⇒ KT의 5G SA 상용화를 시작으로 국내 본격 도입이 기대되며 향후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확대할 방침
- ⇒ 5G SA망은 모든 서비스를 5G 통합 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초저지연과 초연결 성능 구현에 적합

▶ 삼성전자, 미국방부 5G 테스트베드 구축... AR/VR 훈련 구현

(전자신문)

- 삼성전자, 첨단 기술 전문 업체 GBL시스템즈와 함께 미국 국방부 5G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 5G 테스트베드는 미 국방부가 10월 발표한 5G 테스트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총 6억달러 투입
- 삼성전자는 5G 엔드투엔드 솔루션과 기술 제공을 통해 AR, VR 활용한 훈련 환경 구현 지원
- ⇒ 북미 시장에서 공공분야 5G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차후 통신장비 분야 추가 수주 가능성 기대
- ⇒ 5G 통신장비 섹터는 투자 재개로 인해 하반기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심으로 실적 개선 전망

▶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공정성 훼손'..."KT, 정부에 반대 의견

(아이뉴스24)

- KT,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20MHz폭 추가할당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
- KT는 할당방안은 주파수를 두고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주장
- 또한 경쟁없이 해당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에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
- ⇒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G 주파수 100MHz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80MHz 폭만 확보
- ⇒ KT는 추가할당 통과될 경우 KT와 SKT가 확보한 3.5GHz 대역 가치에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

▶ '패소' 넷플릭스, 항소한다

(아이뉴스24)

-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심 판결 관련 항소 최종 결정
-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송의 경우에는 망사용료 미지급
-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
- ⇒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B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
- ⇒ 넷플릭스 측 항소에 따라 '망 사용료'에 대한 SK브로드밴드와의 공방은 장기전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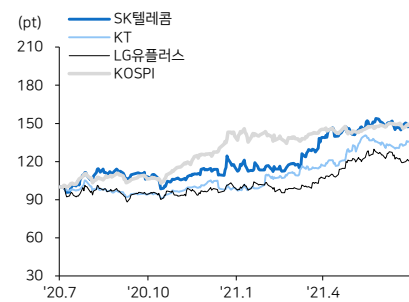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22,000	20.3	17.1	17.7	1.3	1.5	1.9	2.4	5.0	5.2	5.8	5.7	8.9	10.4
	KT	33,050	7.6	21.5	22.1	1.2	1.3	0.7	0.8	4.4	4.6	3.0	2.9	5.9	6.4
	LG유플러스	14,750	5.6	12.2	12.8	0.9	1.0	0.6	0.7	3.0	3.2	3.7	3.6	9.0	9.5
미국	AT&T	28.3	202.3	173.5	163.5	33.4	33.3	22.6	21.1	53.7	52.2	7.2	7.4	12.7	11.7
	Verizon	56.5	233.7	134.1	136.5	31.8	33.0	21.1	21.6	48.4	50.0	7.9	7.7	28.3	25.6
	T-Mobile	149.4	186.3	79.9	82.1	7.1	9.5	3.0	4.4	27.1	28.2	9.6	9.2	4.8	5.9
일본	NTT	2,875	101.9	108.2	109.2	15.1	15.8	8.4	9.9	29.0	29.3	6.0	5.8	10.8	13.7
	KDDI	3,480	72.8	48.5	48.8	9.6	9.6	6.0	6.0	16.3	16.2	5.2	5.1	14.5	13.6
	Softbank	7,481	117.1	50.9	53.9	49.9	17.1	37.1	11.3	50.0	33.9	5.1	7.4	39.3	10.2
중국	China Mobile	48.1	126.7	123.7	128.9	18.3	18.7	17.2	17.9	45.1	46.4	1.5	1.5	9.5	9.4
	China Unicom	4.1	16.3	49.4	51.9	2.1	2.4	2.2	2.5	15.2	15.8	0.9	0.9	4.3	4.8
	China Telecom	3.0	31.0	64.7	67.8	4.8	5.1	3.6	3.9	19.3	20.0	2.1	2.0	6.2	6.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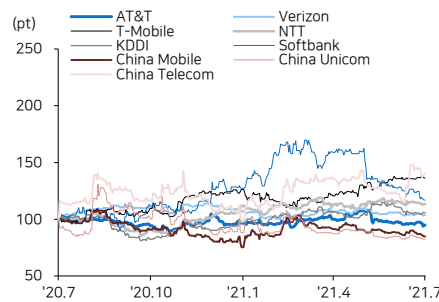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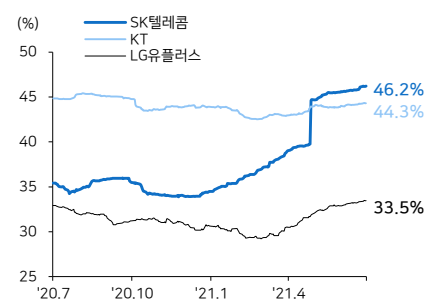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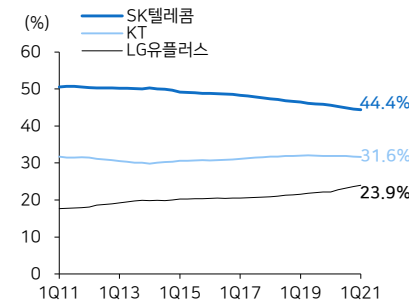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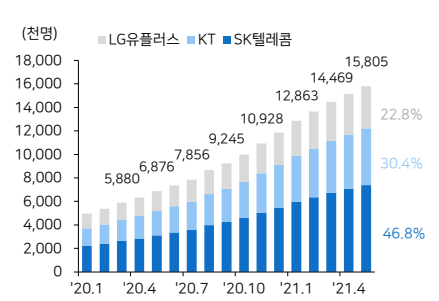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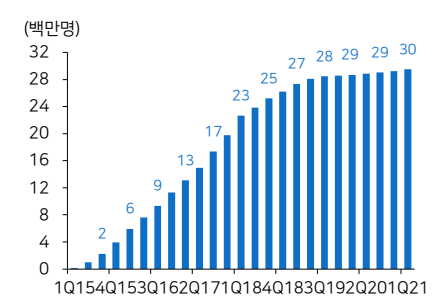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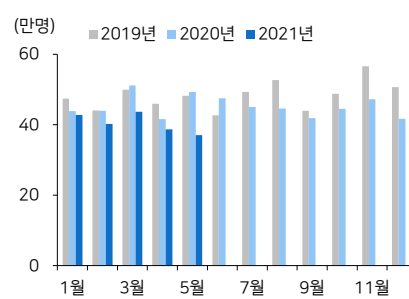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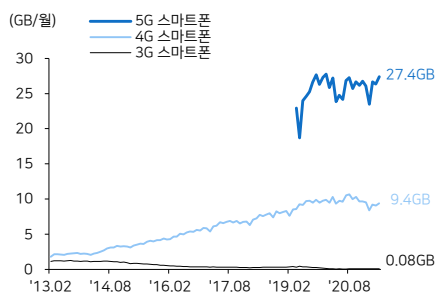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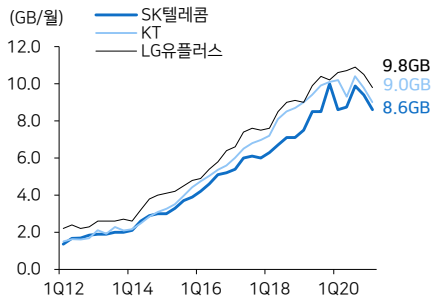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